

문학치유(11)



정해옥

청명종합엔지니어링 회장
papaenergy@naver.com

테네시 윌리엄스의 희곡 「유리 동물원」을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온다

짐: 그럼 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 있지?

로라: 별로-하는 일이 없어요 그렇다고 뉘 놓고 앉아만 있다고 생각하진 말아요!

내가 수집한 동물들은 상당한 시간을 잡아먹어요 유리란 상당히 조심해서
다뤄야 하니까

짐: 무슨 말이지? - 유리라니

로라: 유리동물원 수집 말예요 -난 유리동물들을-(그녀는 헛기침을 한다 그리고
는 몹시 수줍어서 다시 고개를 돌린다)

짐: (불쑥)내가 로라의 괴로움이 무언지 말해볼까? 그건 일종의 열등감이야! 열
등감이 뭔지 알아? 자기 자신을 업신여기는 걸 열등감이라고 해, 나 역시 열
등감을 이해해, 나 역시 열등감에 휘말린 적이 있거든

물론 내 경우는 로라의 경우처럼 심각하진 않았지만, 내가 열등감을 이겨 낸
건 화술 공부를 해서 목소리도 단련하고 과학에 소질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
고 나서야 그 전까지만 해도 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했었
지! 난 결코 정식으로 과학교육을 받은 건 아니지만 친구 말이 의학을 전공한
의사보다도 내가 사람을 더 잘 분석한다는 거야

그 친구 말이 꼭 맞다고 말할 순 없지만 나는 어느 정도 사람의 심리를 꿰뚫어
볼 수 있어.....

..... 그래- 내 판단에 의할 것 같으면 그것이 로라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
라고, 한 인간으로서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,가져도 될 만큼의 자신감도
없다 이거야 로라가 하는 말을 들어보고 내가 관찰한 데에 근거를 두고 하는
말이야

말하자면 고교 때 발걸음 소리만 해도 그렇지 발소리가 좀 나기로서니 뭐 그
리 대순가? 교실에 들어가는 게 두려웠다고 했지?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는

지 알아? 학교를 그만 두었다고 결국 그놈의 구둑굽 소리 때문에 학교 공부를 포기한 거라고
내 보기엔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겨우 들릴까 말까한 그 소리 때문에 말이야! 거의 눈에 띄지도 않는,
신체적 결함을 가지고, 공연히 쓸데없는 망상을 몇 천 배로 확대한 거지 뭐야!

내가 로라에게 강력히 충고하고 싶은 게 뭔지 알아? 자신이 어떤 점에선 남보다 훨씬 뛰어났다는 거야!

로라: 어떤 점이 그럴까

짐: 이봐요, 로라 정신 좀 차려! 주변을 살펴보라고 뭐가 보이지? 이 세상은 온통 평범한 사람들로 출렁거
리고 있어! 그들 모두가 태어났다간 죽어가는 것뿐이야! 그들 중 어떤 사람은 로라의 장점을 10분의
1도 갖고 있지 않아! 어떤 사람은 내 장점의 10분의 1도 안 되고! 또 다른 사람의 10분의 1도 안 될 수
있고!

모든 사람이 어떤 한 가지 점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,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점에서 뛰어날
수도 있고 (짐은 무의식적으로 거울에 자기 모습을 비추어 본다) 그러니까 문제는 당신이 어떤 점에
서 뛰어났는가를 발견하는 일이야!

내 경우를 예를 들어보자고 (그는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바로 잡는다) 난 전기공학에 관심을 갖게 되
었지, 창고에서 상당히 책임 있는 일을 하는 것 이외에도 밤에는 라디오 공학 강좌를 수강하고 있다
고, 그 강좌를 수강하면서 화술도 공부하고 있어,.....

「유리 동물원」(뱀우사, 1992)에서

이 작품에서 작가는 짐의 입을 통해 열등감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함께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마음가짐
과 실천해야 할 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고 있다 열등감은 누구나 가지고 있기에 이 글을 꼭 읽어보도록
권하고 싶다

사실 열등감이란 ‘다른 사람에 비해 나는 형편없는 존재야’ 하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감정을 말한다 또
열등감이 심한 사람은 「유리 동물원」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사소한 일로도 민감해지고, 자기 자신의
장점은 보지 못하고 단점만 더 크게 생각하여 스스로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 마음이 늘 불안하고 두려우
며 자신감이나 만족감이 별로 없다

때로는 자기 자신의 실체를 감추고 자기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외적 치장을 통해 자신을 방어하려 들기
도 한다 돈이 많은 것처럼 과시하거나 형편 이상으로 좋은 차나 가구 등을 구입하여 자랑하고, 또는 명함
에 아무 힘도 없는 직책들을 줄줄이 적어놓는 것 등이다

남들이 하는 일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뒷전에서 빈정거리거나 남을 업신여김으로써 자신의 자존
심을 세우려 들기도 한다 ‘그 애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, 차라리 호박 줄기에서 수박이 열리기를 기대
하는 게 더 낫지’하며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고 스스로 우월해 보이려 하는 것이다

열등감이나 두려움이 남들보다 큰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이 있지만, 그 근저에는 자신감 부족과 자신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 때문에 문학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, 스스로에 대한 불신을 버리고 신뢰심을 쌓는다면 자신을 압박하던 열등감이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

로마제국의 용맹스런 장군이자 지략이 뛰어난 정치가였으며 당대의 웅변가이기도 했던 시저, 특히 그는 소아시아제도에서 폰투스 왕의 대군을 섬멸하고 로마에 있는 친구에게 “왔노라, 보았노라, 이겼노라” 단 세 마디의 짧은 편지를 써 보냈는데, 이 짧은 명문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유명하다

그런데 그는 간질병 환자였고, 이로 인한 열등감이 있었으며 사람들에게 자신의 병이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두려움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해 내고 영웅이 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「갈리아 전기戰記」, 「내란기」 등과 같은 훌륭한 저서들도 남겼다

따라서 그의 강인한 극복 의지가 담긴 이러한 저서들이나 그의 일대기를 그린 위인전을 읽는 것도 열등감이나 두려움 퇴치에 도움이 될 것이다

조선시대의 엄격한 신분 사회에서 천첩 태생으로 최고의 명의 자리에 올랐던 허준이나 역시 서얼 출신으로 온갖 차별과 사회적 제약 속에서도 마침내 독창적인 사상의학의 창시자가 된 이제마도 신분 차별과 그로 인한 온갖 억압에 열등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강인한 의지로 그 모든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해 내었다

그러므로 이들이 쓴 「동의보감」이나 「동의수세보원」 또는 허준과 이제마의 일대기나 그들의 삶을 감동적으로 엮은 소설을 읽는 것도 열등감이나 두려움 해소에 좋을 것이다

참고문헌; 한국문인(2019 6.7 이철호)